우리은행 이승아(오른쪽)가 7일 춘천에서 열린 하나외환과의 홈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앞에두고 골밑슛을 던지고 있다. 사진제공 | WKBL

양지희 22점 우리은행 '11연승'

하나외환 상대 89-78…올 시즌 6개구단 최다 득점

사흘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고, 승패도 똑같았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꼴찌 하나외환을 상대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우리은행은 7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14~2015 여자프로농구' 하나외환과의 홈 경기에서 22점을 기록한 양지희의 활약을 앞세워 89-78로 압승을 거두고 11연승을 마크했다. '단일리그 도입 후 개막 최다연승 신기록'을 11로 늘인 우리은행은 이제 2006년 겨울시즌에 작성한 팀 역사상 최다연승(12경기) 타이를 눈앞에 뒀다. 우리은행과 2위 신한은행(7승3패)의 간격은 3.5게임차로 벌어졌다. 반면 하나외환은 8연패 늪에 빠지며 5위 KDB생명에 1.5게임차로 뒤처졌다.

4일 맞대결에서 67-59로 이겼던 우리은행은 1쿼터 후반 상대 백지은에게 연속 3점슛을 허용해 19-18로 쫓기고, 2쿼터 초반 잠시 리드를 내주기도 했지만 이내 분위기를 추스르며 전반을 41-31, 10점 앞선 채 마쳤다. 3쿼터 중반 59-38, 20점차까지 달아나는 등 이후 별다른 고비 없이 여유 있게 승리에 입맞춤했다.

하나외환은 부상에서 복귀한 '1순위 용병' 앨리사 토마스가 24점·13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맥없이 주저앉았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한국 선수단이 7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골프장에서 열린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에서 3년 연속 우승에 성공한 뒤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 합계 11승3무4패로 일본을 압도했다. 사진제공 | KLPGA

김효주 끌고 백규정 밀고…한일전 완승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3회연속 우승

김효주, 日 에이스 오야마 꺾고 우승 선봉
백규정, 日 신예 돌풍 스즈키에 6타차 압승
첫 출전 신예 이미림·최운정도 승점 따내
최종합계 11승3무4패…최강 드림팀 증명

김효주(19·롯데)가 끌고 백규정(19·CJ오쇼핑)이 밀었다. 한국이 일본을 꺾고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총상금 6150만엔)에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역대 전적에서도 7승2무3패로 앞서나갔다.

한국은 7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 2일째(최종일)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7승2무3패를 기록해 최종 합계 11승3무4패, 승점 25대11로 완승을 거뒀다.

대회 전부터 한국의 우세가 예상됐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상금왕 안선주(27),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4관왕 김효주(19·롯데)의 가세로 한국은 '최강 드림팀'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선 새 얼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KLPGA 투어를 이끈 쌍두마차 김효주와 백규정, 그리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예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과 최운정(24·볼빅)은 한일전에 처음 출전해 모두 승점 4(2승)를 따내며 우승에 앞장섰다.

선봉장은 김효주였다. 7일 펼쳐진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일본의 에이스 오야마 시호를 꺾으며 우승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계속해서 이정민(22·비씨카드)과 이민영(22)은 모리타 리카코, 와타나베 아야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2를 더해 상승 분위기를 이었다.

이미림과 최운정은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 4번째 주자로 나선 이미림은 3언더파 69타를 쳐 류 리츠코(1오버파 73타)를 완파했고, 최운정은 이븐파 72타를 기록해 사카이 미키(6오버파 78타)를 물리쳤다.

우승에 쐐기를 박은 것은 백규정이었다. 백규정은 JLPGA 투어에서 10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스즈키 아이를 맞아 일방적 경기를 펼친 끝에 6타차 압승을 거뒀다. 백규정은 18번홀 보기를 기록하고도 1오버파 73타를 적어내 7오버파 79타에 그친 아이를 꺾었다. 백규정의 승리로 승점 2를 추가한 한국은 승점 19를 확보하면서 통산 7번째 우승을 확정지었다. 백규정은 첫날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신지애(26)와 짝을 이뤄 승리한 데 이어 2경기에서 모두 이겼다.

새 얼굴들의 활약 속에 어느덧 고참이 된 이보미(26)와 신지애도 나란히 2승씩을 올리며 제 몫을 다했다. 안선주(1승)와 박인비(1무), 유소연(24·1승1무), 이민영(1승) 등도 고른 활약으로 우승에 힘을 보탰다. 주장을 맡은 안선주는 "열심히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첫날 좋은 성적을 냈지만, 골프라는 건 끝날 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렇기에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격려했다. 경기하는 것보다 캡틴으로서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 한일 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경기 결과

1라운드(6일)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결과	선수	성적(승점)	결과	선수	성적(승점)
승	안선주	66타(2)	패	오야마 시호	70타(0)
	이보미			사카이 미키	
승	이미림	69타(2)	패	요시다 유미코	70타(0)
	최운정			나리타 미스즈	
승	신지애	67타(2)	패	기구치 에리카	69타(0)
	백규정			모리타 리카코	
패	이민영	71타(0)	승	아나이 라라	69타(2)
	전인지			와타나베 아야카	
승	김효주	65타(2)	패	류 리츠코	72타(0)
	이정민			스즈키 아이	
무	박인비	67타(1)	무	우에다 모모코	67타(1)
	유소연			하라 에리카	

2라운드(7일)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

결과	선수	성적(승점)	결과	선수	성적(승점)
승	김효주	71타(2)	패	오야마 시호	72(0)
무	이정민	73타(1)	무	모리타 리카코	73타(1)
무	이민영	77타(1)	무	와타나베 아야카	77타(1)
승	이미림	69타(2)	패	류 리츠코	73타(0)
승	최운정	72타(2)	패	사카이 미키	78타(0)
승	백규정	73타(2)	패	스즈키 아이	79타(0)
패	전인지	73타(0)	승	오에 가오리	69타(2)
승	이보미	72타(2)	패	요시다 유미코	76타(0)
패	최나연	75타(0)	승	아나이 라라	74타(2)
패	박인비	75타(0)	승	하라 에리카	70타(2)
승	신지애	70타(2)	패	우에다 모모코	74타(0)
승	유소연	67타(2)	패	나리타 미스즈	77타(0)

김하늘, 내년 JLPGA투어 출전

QT 공동13위로 통과…배희경·김영도 시드 확보
김하늘·신지애·이보미 '상금왕들의 대결' 기대

2011~2012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왕을 지낸 김하늘(26·비씨카드·사진)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김하늘은 6일 일본 시즈오카현 가쓰라기 골프장(파72·6424야드)에서 끝난 퀄리파잉 토너먼트(QT) 최종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합계 9오버파 297타, 공동 13위로 2015시즌 JLPGA 투어 진출에 성공했다. 2007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김하늘은 첫 해 신인상을 수상했고, 2011년 3승을 올리며 상금왕과 대상, 다승왕 등을 휩쓸었다. 올해는 우승 없이 준우승만 5차례 기록하며 상금랭킹 9위로 마감했다. 김하늘은 "4일 내내 긴장된 경기를 치렀다. 올해 한국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 시즌 일본에서 첫 우승을 기록하는 게 목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희경(22)은 합계 8오버파 296타, 공동 9위로 지옥의 관문을 통과했다. 올 시즌 JLPGA 투어 상금랭킹 65위에 그쳐 QT로 밀려난 김영(34)은 4위(6오버파 294타)로 내년 시드를 확보했다.

김하늘의 가세로 내년 JLPGA 투어에선 신지애(26·2007~2008년), 이보미(26·2010년) 등 역대 KLPGA 상금왕들의 대결을 볼 수 있게 됐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김승혁, 프로데뷔 9년만에 JGTO투어 신인왕

프로 데뷔 9년 만에 한국과 일본에서 성공시대를 연 김승혁(28)이 일본프로골프(JGTO) 투어 신인왕을 차지했다. 김승혁은 7일 일본 도쿄 요미우리 골프장(파70)에서 열린 JGTO 투어 시즌 최종전 JT컵(총상금 1억3000만엔·우승상금 4000만엔)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를 쳐 합계 3언더파 277타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우승은 놓쳤지만 JGTO 투어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2005년 프로로 데뷔한 김승혁은 올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오픈과 한국오픈 우승으로 상금왕과 대상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끝난 대회에선 이상희(22)가 합계 6언더파 274타러 한국선수 중 가장 높은 공동 3위에 올랐다. 허인회(27·JDX스포츠)는 공동 8위(4언더파 276타), 김형성(34·현대자동차)은 공동 13위(2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쳤다. 주영로 기자

'오버페이' 논란 박하나, FA 영입 성공사례로 뜨다

삼성 "가능성·스타성 겸비"과감한 베팅
3R 현재 10.6점…슈팅가드중 최고 득점

여자프로농구 삼성은 지난 오프시즌에 자유계약선수(FA) 박하나(24·사진)를 계약기간 3년, 연봉 2억1100만원에 붙잡았다. 2013~2014시즌 하나외환에서 연봉 7500만원을 받은 박하나는 평균 6.1점·1.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눈에 띄는 기록은 아니었다. 삼성의 베팅에 '오버 페이' 논란이 들끓었다. 삼성은 박하나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포텐셜만을 보기에는 무리한 투자가 아니냐는 시선이 따랐다.

삼성은 노장 이미선(35)을 보좌할 가드 영입이 절실했다. 당시 삼성은 "WKBL은 현 제도상 스타급 선수 영입이 어렵다. 그 와중에 가능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박하나는 우리에게 더 없이 좋은 카드였다"고 영입 배경을 밝혔다.

3라운드를 치르고 있는 현재 삼성의 과감한 베팅은 성공작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하나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평균 32분여를 뛰면서 10.6점·2.8리바운드·1.6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6개 구단 슈팅가드 중 가장 높은 득점이다. 3점슛 성공률은 39.0%(41개 시도·16개 성공)로 리그 2위다. 간헐적으로 외국인선수들과 2대2 플레이까지 펼치고 있다. 국내선수 득점옵션이 부족한 삼성에 박하나의 가세는 반갑기만 하다.

삼성 이호근 감독은 "본인이 연봉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열심히 운동하면서 시즌을 잘 준비했다. 잘해주고 있다. 앞으로 시즌 내내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박하나의 과제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나눔 Lotto 6/45 당첨번호

● 제 627 회 Lotto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2	9	22	25	31	45	12

1등 총 당첨금 : 13억, 522,306,500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조건	당첨자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10 명	1,352,230,650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35 명	64,391,936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1,532 명	1,471,096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74,824 명	50,000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1,243,945 명	5,000	5,000원

*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4.12.6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로또 구입시 유의사항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행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부이며, 지나친 복권구매는 도박중독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